



명일엽(明日葉)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이 식물은 원래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 자생하는『미나리』과의 종자식물로서 일본의 태평양 남쪽 팔장도(八丈島)라는 섬에 자생하고 있다. (학명은 *Angelica utlis*) 이 섬들은 원래 일본 도쿠가와(徳川) 막부(幕府)시대에 죄수들의 유배지로 유명하다. 막부정부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그들의 생사와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선을 파견했었다.

처음에는 그들 죄수들이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이 섬에서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은 모두 건강하였으며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섬에 자생하고 있는 명일엽을 먹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섬의 명일엽은 일본 본국에서 일약 유명해 졌고 다투어 이곳의 명일엽(明日葉)이라는 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 삼아 明日葉을 먹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최근 이 明日葉의 성분과 약리효능이 속속 연구 규명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암의 특효성분이라고 알려진 게르마늄의 함유량이 다른 어떤 약초보다 많다고 하며 비타민 B1, B12, C와 가고탄산, 만강, 아연, 마그네슘, 나트륨, 철분, 칼륨 및 각종 미네랄 및 필수 아미노산 등이 많이 함유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

다. 또한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하면 신선한 야채나 과일에만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비타민 B12는 그렇지 않고 동물에만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모든 고등동물은 이 비타민 B12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질소와 금속원자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타민 B12의 궁극적인 원천을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합성에 의지하고 있다. 또 아미노산 대사(代謝)에 있어서도 보조(補助)효소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일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악성빈혈이 일어난다.

기타 풍부한 무기질은 만성질환, 빈혈, 아동발육에도 좋고 각종 성인병의 치료 및 영양 효과가 있고 활동기의 청년, 노년기의 건강유지 증진에 보약적 효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성인병의 치료 및 예방에 좋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명일엽에서 추출한 식물성 게르마늄으로 말기 목암 환자가 치료된 사실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기타 변비, 축농증, 정력부족, 신경통, 빈혈, 백혈병, 천식에도 유효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섬에는 옛날부터 고혈압이나 암 등의 성인병이 없는 장수의 섬으로 유명하다.

뜻있는 분이 그곳에서 명일엽을 가지고 와 우리나라에서도 약 10년전부터 재배에 성공하고 있다.



明日葉을 생채로 먹어보면 미나리과의 특유의 아주 좋은 성분의 향기가 있으며 입속이 아주 상쾌해 진다. 또 고기를 싸서 먹으면 아주 일미이며, 고기가 많이 먹힌다.

구로시에서 明日葉을 전문적으로 다량재배하고 있는 권순홍씨(59세)농장에서 고기에 싸서 먹든 明日葉의 맛은 일품이었다.

이것을 잘 건조하여 가루를 만들어 국수나 냉면, 빵 등을 만들어 먹어도 맛이 특이하며, 잼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일본에서는 이것으로『다』,『드링크』,『잼』,『캔디』등을 개발하여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건강식품 혹은 약초로서 많이 재배될 것이라 생각된다.

내가 明日葉의 원산지라고 알려진 팔장도(八丈島)에 간 것은 1989 여름이다. 팔장도(八丈島)가는 배편은 일본의 동경만의 히노대산바시(日出)에서 출발한다. 일본재일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신 김용태(金容太)선배님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벤자로 선착장까지 직접 우산을 드시고 전송해주시고 연구비로 금일봉(일본돈으로도 아주 큰돈)을 주셨다. 이 분은 대구계성 학교의 나의 선배님이다. 배는 밤새 남태평양(南太平洋)의 거센파도를 헤치고 간다. 무려 7,500톤의 큰배이지만 태평양의 거센파도에서는 배머리가 떨어져 그것이 다시 해면과 부닥칠 때에는 쿵하면서 아주 큰『짱』하는 심엄하는 뜻하는 쇠소리가 난다. 도중 첫 기착항은 火山으로 유명한 오오지마(大島)이고, 다음이 미야게시마(三宅島)이다. 밤새도록 南下하여 八丈島 도착한 것은 아침해 뜰 무렵이다. 八丈島에는 明日葉研究所가 있다.

연구책임자인 金田선생을 만나 明日葉茶 공장내부를 잠시 구경시켜 주었다. 타인에게 절대로 구경시킨 일이 없다는 이야기다. 金田선생과 일본에서 제일 큰 八丈島 明日葉 농장을 구경했다.

明日葉은 피나무계통의 수림의 樹下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그 규모는 대단히 크고 족히 10万坪이 넘는다고 한다. 八丈島에 明日葉이 自生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조그마한 비행장이 있어 갈때는 쌍발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하네바(羽田)비행장에 내렸다.

그후 90년도에 나는 大島와 三宅島와 伊豆半島를 제차탐사했다. 大島에도 명일엽 연구소가 있었고 三宅島에는 조그마한 明日葉 製茶공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섬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明日葉은 언제나 品切현상이며 이것으로 茶는 물론 국수, 라면, 떡(일본 사람은 모찌라 한다)제리 등 여러가지의 상품을 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明日葉에 게르마늄은 함유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유기(有機)게르마늄은 시비(施肥)했을 때에만 그것을 함유하고 있지만 보통상태에서는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일본의 문헌을 부지런히 인용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일본 학계와 明日葉판매자들은 그것이 과대허위 선전이라하며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선전문은 한장도 없다.

게르마늄이 암퇴치의 명약이란 논설은 정부측과 그것을 주장하는 일부학자들에 의하여 결론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明日葉이 건강식품에는 틀림이 없다. 건강식품으로 생입을 상식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 明日葉 재배붐이 일어나고 있다. 남해안의 고흥과 완도(莞島)에도 재배가 막 시작할 움직임이 보인다.

내가 1992. 11. 8일에 완도군에 황칠나무자생지 조사차갔을 때 丁鐘植 山林고장과 농촌지도소장은 완도에 明日葉을 재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도의 군화(郡花)는 동백이며 이곳에 세계에서 희귀한 황금색의 옷나무(황칠)나무가 있는데 정종식(丁鐘植) 과장과 김재덕(金在德) 계장 보건의료원 김형배(金亨培)원장의 도움으로 自生地를 발견 그 표본을 가지고 왔다. ●